

장백산천지

제15호

2007년 1월 12일

금요일

중공은 애국주의 미명하에서 매국

중공은 정권을 잡은 56 년동안 애국주의를 높이 웨쳤는데 그 모든 행위가 진정으로 중화를 사랑해서인가? 중공의 설립은 옛소련이 중국에서의 리익을 얻기 위해 부추켜 세운 제 3 국제원동지부로서 하나의 반화세력이다.

중화민족 5 천년 문화사는 얼마나 휘황하였는가! 당나라의 흥성시기, 당시의 장안은 전 인류 문화의 성지였다. 바로 2 백년전에 강희, 건륭성세 때만하여도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우위적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핍박에 의해 국제적으로 이미 버림받은 맑스주의로 조국의 5 천년 문화의 령혼을 한낱 독일리론에 팔아먹었다. 중공은 중국근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매국집단이다. 옛소련이 외몽골을 중국의 판도에서 떼어낼 때 당시 공산당신문은 환호했다. 1999 년 강택민이 러시아와 변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가 근대력사에서 침략한 중국의 150 만평방키로메터의 땅에 대한 소환권을 팔아먹었다. 또 항일전쟁 당시의 배상요구권에 대해서도 모택동은 한마디 말로 《우리는 일본의 중국침략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만약 일본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중국공산당의 승리도 없다.》고 하며 중국인민이 능히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 요구권도 포기하고 말았다.

1921 년 중공은 제 1 차대표대회의 선언에서 티베트(西藏)、신강(新疆)、내몽골 모두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갈 수 있으며 세계상의 모든 《민주련방》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였는데 지금은 《대만독립》, 《티베트독립》, 《신강독립》을 반대한다고 높이 부르짖는 것이 진짜란 말인가? 사실 오늘 중공의 《령토완정》, 《주권통일》은 모두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서 중화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다. 터놓고 말하면 이것을 빌미로 국내모순을 전이시킴으로써 그의 집단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공산당은 줄곧 중화민족을 적대시하였으며 그 일당의 개인리익이 영원히 중화민족의 리익보다 높았다. 력사적으로 볼때 중공은 민족존망의 위험한 시각에 외국정치세력에 들러붙어 국가를 분열하고 령토를 팔아먹고 민족리익을 팔아먹었기에 근본 중화민족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중공을 버리고 퇴당, 퇴단, 퇴대하는 것만이 진정한 애국이다.

홍콩에서 새해 시위행진을 거행

2007 년 1 월 1 일, 홍콩퇴당 북무센터등 여러단체는 함께 1,700 만 용사들의 퇴당을 성원하는 시위행진을 거행 하였다.



법륜공 창시인은 문장을 발표하여 세계각지의 새해문안에 감사의 뜻을 답하였다

새해가 되면서 세계각지의 법륜공수련생들이 명혜망을 통하여 아름다운 연하장과 그림, 시구등 방식으로 법륜공창시인 리홍지 선생님에 새해축하를 드렸고 사부에 대한 그리움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현하였다. 축하메시지에는 그들이 “진선인” 대법에 대한 견정한 신념과 락관적인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중공이 법륜공에 대한 7 년간의 박해가 그들의 믿음을 절대 개변시키지 못하였다. 이와 동시에 명혜망에는 중국 사회각계층 인사들의 편지도 받았는데 이가운데에는 정부관리, 학자, 군인, 경찰과 일반 백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법륜공 창시인 리홍지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전해달라고 하였다.

사회각계인사들로 부터 온 새해문안에 법륜공 창시인은 새해의 첫날 명혜망에 아래의 문장을 발표하여 감사의 뜻을 답하였다.

중생들의 문안에 감사를 드린다

대법제자, 세인, 중생들: 안녕하십니까!

당신들의 문안에 감사를 드린다! 당신들의 축복에 감사를 드린다! 진심으로 나의 대법제자들이 모두 원만하기를 희망한다! 진심으로 세인들이 모두 진상을 명백히 알고, 역사가 인류에게 정해준 가장 큰 악마, 사악한 당(邪黨)의 중국인과 전 세계에 대한 독해, 대법제자에 대한 박해를 똑똑히 알고, 이 역사상 중생들의 가장 큰 ‘겁(劫)’을 걸어 나오며, 진심으로 중생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중생들이여! 당신들이 수천년 이래 희망한 것, 기다린 것과 당신들이 걱정된 것이 모두 다가왔고 아울러 바야흐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마다 모두 자각적이므로 비자각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대법제자는 각 지역, 각 민족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들이 한 것을 소중히 여김이 바로 당신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당신들의 문안에 감사를 드린다!

리홍지 李洪志

2007 년 1 월 1 일



47 명이 공동으로 퇴당성명

우리 47 명은 공동으로 무리하고 비렬하고 사악한 중공에서 퇴출함을 정중히 성명한다. 중공악당은 법륜공학원들을 참혹하게 박해했으며 심지어 법륜공학원의 생체장기를 적출하여 고가로 팔았다. 오늘은 법륜공학원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래일에는 너와 나, 그대들을 박해할 것이다. 정의 인사들이여 하루빨리 《3 퇴》하여 평안을 찾으라!



원한을 품은 채 세상 뜬 학영강

2006 년 6 월 8 일, 연길시 대법제자 학영강은 중공의 모진 박해 속에서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81 세 나이는 늙은 어머니는 길림감옥에 찾아가서 악인 소민에게 땅을 치며 통곡했다.

《죄 없는 내 아들을 왜서 죽였느냐?》

학영강은 원래 연길시량식곡저장고 보위과 과장이었다. 그는 법륜대법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악경들에게 붙잡혀 호된 매를 맞아 까 무러쳤으며 또한 비밀리에 위법으로 8 년판결을 받았다. 길림감옥 악경들의 혹형과 시달림에 그는 간경화복수에 걸렸고 허리림파가 썩었으며 폐에 물이 차고 온몸이 부어올랐으며 왼쪽골반골은 분열 되었고 오른쪽 귀가 멀었다.

2002 년 9 월 2 일, 학영강은 대법박해진상을 알리다가 악경들에게 체포되었다. 연변주공안국 610 두목 오경림이 그에게 《너를 때려죽여도 죄를 짓지 않고 자살로 취급하라는 강택민총서기의 밀령이 있으니 네가 어디에 가서 상소를 해도 헛수고》라고 협박하면서 련속 4 일동안 호랑이 의자에 앉기, 비행기 물기, 전기충격하기, 에워싸서 때리기 등등 비인간적인 혹형을 감행했다. 학영강은 생전에 자신이 받은 고문을 이렇게 서술하였다. 《내가 심문 받고 나올 때면 땅바닥과 벽, 책상과 걸상은 온통 나의 피로 물들여졌으며 나의 온몸의 상체에는 피와 옷이 한데 말라 붙었다.》, 《나는 진-선-인의 표준으로 더욱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사악한 중공의 독재는 오히려 좋은 사람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녕시공안국 악경 4 명이 악보 받아 사망

리원군은 원래 청해성서녕시공안국 형경대대 대장으로 있었고 2002 년 서녕시공안국 부국장으로 되었다. 2002 년 8 월 24 일 장영연등 5 명의 법륜공 수련생들을 서녕시와 린근 민화현 에서 랍치한 적이 있다. 2006년 8월 서녕시공안국에서 수련생들의집을 수색하고 불법으로 로동교양 을 시켰다. 2006년 8월 18 일 국장이 직접 참여 하여 법륜공수련생들을 랍치 했으며 이튿날 부국장 인 리원군이 갑자기 암으로 사망했다. 8 월 21 일 리원군의 시신을 안치한 후 법륜공 수련생들에 대한 수사, 체포, 납치, 심판 등에 참여해온 서녕성동 공안분국 국장 주해림이 10 월 23 일 뇌출혈로 급사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10 여일후 서녕시개발구 공안국 국장 담소평이 간암으로 북경에 가서 치료 했으나 차도가 없자 서녕으로 돌아왔고 2006 년 11 월 7 일 간암으로 사망했다. 담소평은 개발구 공안국에 부임하기 전 줄곧 서녕시 공안국 5 처 처장으로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간수소에서 법륜공 수련생들을 박해하는 일을 담당했다.

2006 년 11 월 27 일 서녕시 성북분국 치안대 대장 양영녕이 갑자기 돌연사했다. 양영녕은 원래 서녕시공안국 성북분국 조양파출소 소장으로 있었고 성북분국에 부임한후 수십명의 대법제자들에게 소란을 피웠고 구류시키거나 로동교양시켰다.

벼락 맞아도 무사했다

공주령시화기향의 한 농민이 밭에서 일했다. 갑자기 하늘이 흐리고 번개치고 우뢰가 울더니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바빠 집으로 달음박질 쳤다. 머리위에서 번개불이 번쩍하더니 그에게 벼락을 쳤다. 이상하게도 손에든 보온병은 박살났지만 벼락맞은 몸은 상한데가 없었다. 그는 대법제자가 주고 간 호신부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음을 새삼스레 깨달았다. 이 일이 온 마을에 퍼지자 모두가 《법륜대법이 정말 좋다.》라고 말했다.



법륜공수련생들이 왜 진상을 말하는가?

법륜공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며,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나중에 자신을 생각하며, 사심이 없고 증오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에 연공한 후 병에서 멀리하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강택민 집단은 도리어 연공하지 못하게 하고 죄를 들썩워 모함하고 거짓을 날조하여 백성을 미혹 시켰고 좋은 사람을 나쁜사람으로 간주하여 체포하였으며 강 xx 는 북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법을 위반하고 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지방의 정부관리들이 비록 강xx 의 착오행위를 알고도 제지할 방법이 없었다. 상방은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며 법륜공 수련생들은 정부에 대한 신임으로 북경에 가서 탄압실상을 반영하였고 친히 겪은 경험으로 법륜공이 병을 제거하고 몸이 건강해진 사실진상을 설명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다. 만약 상방하는 것이 죄라면 국가에서 왜 이 상방국을 설립하였겠는가? 실제로 “상방”은 아래의 상황을 위로 전달하는 일종의 방식이며, 옛날에는 백성들이 “복을 치면서 원통함을 호소”하였고 “관리의 가마를 가로막고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99년 7월 20 일 이후, “민원판공실 (信訪辦)”이 공안국으로 되어버렸고 법륜공수련생들이 상방하면 곧 체포되고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졌기에 어떤이는 천안문에 가서 호소하고, 어떤이는 현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선량한 백성들은 강택민의 거짓말에 기편당하여 마음속에 법륜공수련인에 대한 증오로 가득차 있는데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이미 확실히 증명된 통계숫자만도 1999 년 7 월 20 일 이후의 7 년간 민간으로부터 알려진 소식에 따르면 이미 3010 의 법륜공수련인들이 박해로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위험도 마다하고 법륜공이 박해를 받고 있는 진상을 말하는 것이고 전단지를 만들어 집집마다 알리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하는 것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국민은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을 도와 “알아야 할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천지 간에는 저울이 있고 저울추가 바로 백성이다.” 백성의 눈은 가장 밝으며 우리는 인간세상에 그래도 정의와 양지가 있음을 믿고 있다.

